

한국인 입맛에 '착붙'… 스페인 와인의 매력



국내 와인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만 작년에도 잘 팔린 와인이 있다. 뉴질랜드 와인의 경우 최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다들 알고 있지만 소리소문도 없이 깜짝 성장한 와인은 바로 스페인이다. 화이트 와인 대세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의 무게감 있는 레드와인도 잘 팔렸단 얘기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작년 와인 수입 주요 국가 가운데 금액과 규모 모두 늘어난 곳은 스페인과 뉴질랜드 두 곳 뿐이다. 스페인 와인은 지난해 1000만 리터 가까이 수입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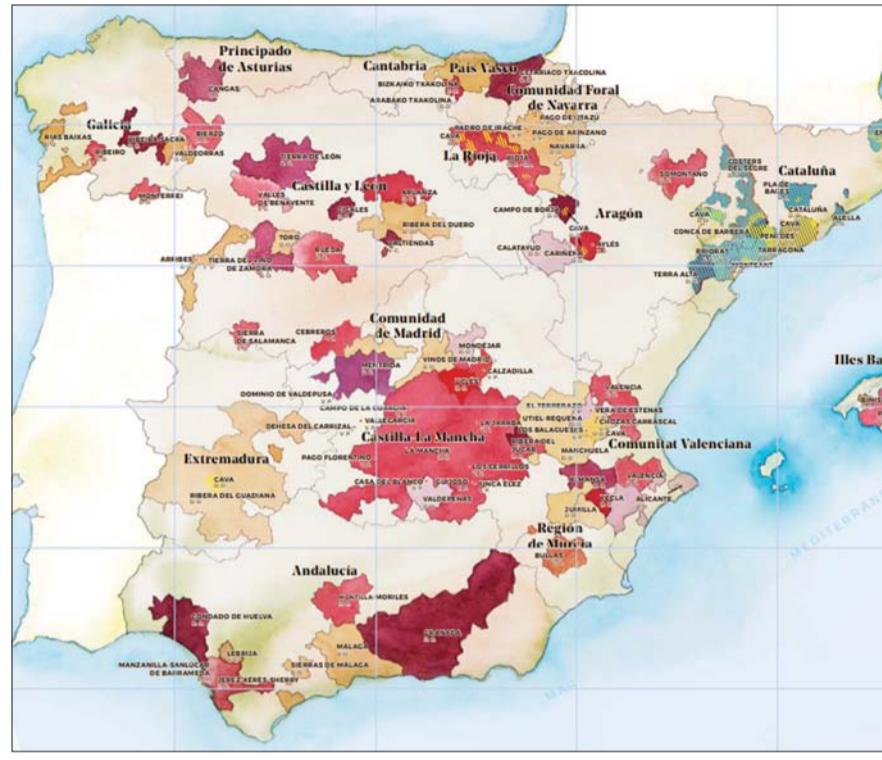
한 스페인 와인 수입사 관계자는 “스페인 와인은 유럽 주요국과 달리 품질 대비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며 “가성비 뿐만 아니라 템프라니뇨, 모나스트렐(무르베드르) 등 스페인 토착품종이 한 국민의 입맛에 잘 맞는데다 국제 품종까지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왼쪽부터)도미니오 데 라 베가 누메로 우노 2023, 티오 페페 피노, 테라스 가우다 오로잘 2024, 아르수아가 크리안자 2022, 펀카 바카라 HI 2018. /안상미 기자

이 넓다”고 전했다.

스페인 와인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다. 스페인 지도를 보면 왜인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인순 외인협의 이인순 원장은 ‘최고의 스페인 와인들(Top Spanish Wine S)’을 주제로 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스페인은 국가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다양한 기후, 테루아가 존재한다”며 “스페인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품종으로는 템프라니뇨나 가르나차(그로나슈), 지역으로는 리오하, 리베라 델 두에로 등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와인 인터프로페셔널 기구



스페인 와인 산지를 나타낸 지도.

/스페인 무역진흥공사 ICEX

(OIVE)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스페인 와인의 품질과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스페인은 로마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포도 재배와 양조가 오랜 기간 발전해 왔으며,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도 생산된다”며 “전역이 건조한 기후로 유기농과 지속가

능 농법도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으로 삼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카바다. 전체 스파클링 와인 가운데 스페인의 비중이 20%를 웃돌 정도로 카바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다.

‘도미니오 데 라 베가 누메로 우노 2023’은 발렌시아 지방에서 마카베오 품

종 100%로 생산한 카바다. 잘 익은 과실 향이 시원스럽게 피어오르더니 꽃향이 어우러진다. 산도와 당도의 균형감이 좋은 가운데 살짝 쌉쌀한 끝맛이 깔끔하다.

화이트 와인은 알바리뇨를 주품종으로 한 ‘테라스 가우다 오로잘 2024’다. 알바리뇨가 잘 자라는 리아스 바이사스 지역에서 생산됐다. 좋은 산도에 화사한 오렌지향과 허브까지 표현력이 좋고, 살짝 짭짤하다. 싶은 염분과 청량감이 어우러져 해풍의 영향이 입안에서도 느껴진다.

이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본다.

먼저 레드 와인 명산지로 떠오른 리베라 델 두에로다. 내륙 분지에 해발 700~1000미터의 고지대로 여기서 자란 템프라니뇨는 농축된 과실에 탄탄한 구조감으로 힘이 느껴지지만 산도도 잘 살아있다. 템프라니뇨를 주품종으로 한 ‘아르수아가 크리안자 2022’는 잘 익은 과실 풍미와 우아한 오크 숙성이 어우러지고, 복합미가 두드러진다.

다음은 모나스트렐로 유명한 후미야다.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다. ‘펀카 바카라 HI 2018’은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었다. 겹은 과실과 향신료, 지중해 허브, 밸사믹 아로마까지 풍부하게 느껴진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과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개관 20주년 맞은 샤롯데씨어터, 2026공연 라인업 공개

화려한 무대 ‘킹키부츠’ 3월 29일까지 한국적 미학의 ‘몽유도원’ 4월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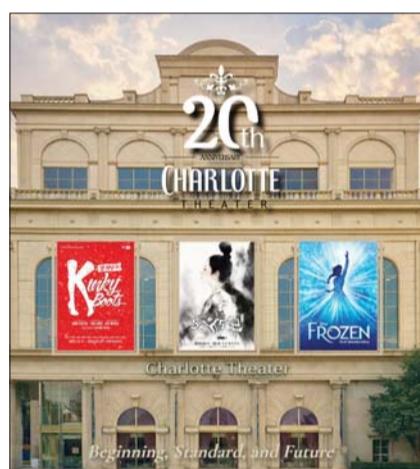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대중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세계 무대와 호흡하는 2026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샤롯데씨어터는 대표 뮤지컬 극장으로서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부터 국내 창작뮤지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샤롯데씨어터는 2026년에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라인업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쇼 뮤지컬의 대명사 ‘킹키부츠’

지난해 12월부터 객석을 블록화한 고 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킹키부츠’가 오는 3월 29일까지 그랜드 피날레를 장식한다. 경쾌한 넘버와 강렬한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킹키부츠’는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이다. 샤롯데씨어터의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과 시야를 통해 ‘쇼 뮤지컬’의 진수를 선사하며 2026년의 화려한 포문을 열어 관객들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K-뮤지컬 ‘몽유도원’의 귀환



2026 샤롯데씨어터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의 브로드웨이 대표작인 ‘라이온 킹’ ‘알라딘’에 이어 한국 관객이 만날 대작이다. 거대한 눈과 얼음의 세계를 구현한 무대와 ‘Let It Go’ 등 영화 속 명곡은 물론, 신곡까지 라이브로 선보인다. 샤롯데씨어터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형 이벤트·한정판 MD 출시

샤롯데씨어터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극장의 주인공인 관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극장 내 관객들의 소중한 기록을 담는 방명록과 포토존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관객들의 사연과 사진을 활용해 ‘관객이 만드는 샤롯데씨어터 포스터’를 제작·공개한다. 또한, 뮤지컬 마니아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할 세련된 디자인의 20주년 한정판 MD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샤롯데씨어터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관객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라인업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샤롯데씨어터만의 정체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표 뮤지컬 극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설상 새 역사 쓴 韓,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모지였던 ‘스노보드’ 첫 금 ‘쇼트트랙’, 전통적 혜자 종목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은 빙상과 설상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19일 기준 대한민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15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설상 종목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1948년 생모리츠 대회 첫 참가 이후 78년 만에 일궈낸 쾌거다. 여기에 김상겸의 은메달과 유승

은의 동메달이 더해지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눈 위에서 약자가 아님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전통적 혜자 종목인 쇼트트랙 또한 건재함을 과시했다.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으며, 최민정은 개인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확보해 한국 역대 최다 메달 타이기록을 세웠다. 동시에 김길리, 임종언 등 신예들이 활약은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일렸다.

비록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의 역대 최고 성적 등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성장은 고무적이다. 특정 종목 편중에서 벗어나 ‘동계 스포츠 올라운더’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남은 일정에서도 추가 메달 사냥을 통해 역대 최고 성과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규준 기자 ch9720@

▲“인내 앓은 트럼프, 수주내 이란 공격 90%”

/사진 뉴시스

▲트럼프 평화위 전날 유엔 안보리서 이스라엘 규탄…‘가자 경쟁’ 본격화

▲‘코로나19 봉쇄 회의론자’ 美 국립보건원장, CDC 국장직 겸임

▲푸틴 측근 “美, 대러 제재로 435조원 손실…제재 해제할 것”

▲申춘제 갈라쇼 달군 휴머노이드 로봇…소비자 관심 폭증

▲호주 1월 실업률 4.1% 유지…“5월 추가 금리 인상 기대 상승”

